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A Review of Studies 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강사 崔妍實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Lecturer: Youn-Shil Choi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의 개발과 사용
 - III.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에 대한 비판
 - IV.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를 사용한 국내연구에 대한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and used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considered a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measuring family functioning in order to clarify the theoretical mean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the limitation and the problems of this instrument.

FACES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in measuring family dynamics in research and clinical fields and been paid attention to by researchers and clinicians since 1979. However, the instrument has been also pointed out its limitation due to th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se problems and, then,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help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to explore the application of this instrument as a measure of family functioning.

I. 문제의 제기

가족 기능성(family functioning)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가족에 대한 기초이론의 연구 분야나 임상 분야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체계이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 가족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였다(Beavers, 1981). 그리하여 많은 평가척도가 개발되었고, 이 척도들을 통하여 가족내의 구조와 상호작용과정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개발된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도구들 중 실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척도들에는 가족 APGAR척도,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가족평가척도(Family Assessment Measure), 가족적응·변화 대응척도(Family Adjustment & Adaptation Response Measure), 가족평가체계모델(System Model of family assessment),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등이 있는데(Grotervant & Carlson, 1989),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FACES series로 불리우는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이하 FACES 로 지칭함)이다.

FACES는 Olson, Sprenkle과 Russell(1979)이 처음으로 개발한 이래, 수정과 보완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개인, 부부, 가족 전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동안 가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그 이론적 유용성을 지지받아 왔다(정수경, 1993). 다른 척도들에 비교해 볼 때, FACES의 특징은 임상 장면에서 가족치료자들이 가족치료를 위한 진단 및 계획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체계 유형 파악을 위한 분류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Goldenberg & Goldenberg, 1991).

FACES는 어떤 가족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개념들 중 특히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이며, 가족의 적응력(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Olson et al., 1983). 이 두 개념은 가족내에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가족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개념으로서,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은 이 개념들이 나타내는 두 차원상에서의 위치에 따라 가족체계가 속하는 유형들을 분류하는 Circumplex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가족기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관련개념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여과작업 끝에 추출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론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역기능적 가족체계를 판별하는 분류기준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개발은 연구·이론·실제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Olson, 1986).

그러나 FACES에 대한 이론적·임상적 측면에서의 주목과 함께 비판과 도전도 또한 강하게 존재해 왔다.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 평가척도로서의 FACES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결함은 바로 개념 규정의 문제와 곡선성 가설검증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 Gavazzi, 1990; Burr, Day, & Bahr, 1993; Lee, 1988; Pratt & Hansen, 1987).

Olson 등은 가족응집성·적응력이 가족기능성에 대한 곡선적 관계 가설이 정상가족이나 비정상가족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임상적 평가척도(CRS: Clinical Rating Scales)를 사용했을 때, 임상가족에서는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Olson, 1991; Thomas & Olson, 1994). 그러나 FACES, 그 중에서도 특히 FACES III는 직선적 관계를 보인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계속 축적됨에 따라 Olson은 3차원적 Circumplex모델" 개발과 곡선관계를 측정해낼 수 있는 FACES IV의 개발을 시도하였다(Olson, 1991; Olson,

1) Olson은 Beavers와 Voeller(1983), Lee(1988) 등의 견해를 수용하여, 3차원 Circumplex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FACES가 직선적인 측정치라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응집성이나 적응력의 점수가 높으면 '균형'수준에 분류시키고, 점

1994; Tiesel, 1994).

FACES의 곡선적 가설과 관련하여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곡선적 가설을 지지한 경우(유순덕, 1987; 전귀연·최보가, 1993; 정민자, 1992)와 선형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들(김수연·김득성, 1993; 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안양희, 1988)로 나뉘어 나타난다. 이와같이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연구들마다 다른 척도인 FACES II와 III를 사용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측정도구의 차이점, 둘째, 곡선적 가설 검증에 사용한 통계 방법의 적용 문제, 셋째, 응집성과 적응력의 분석 차원의 문제 등에 의해 혼란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척도를 사용한 국내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 점들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연구들은 계속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근의 논의들을 수렴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기능성 평가척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르러 그것을 이용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방법론적인 성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논란이 분분한 FACES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적들이 국내연구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문헌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가족기능성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작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의 개발과 사용

1.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 개발과정

Olson 등(1979)은 가족치료이론을 포함한 가족관계문헌을 폭넓게 고찰하여, 잘 기능하는 가족을 나타내주는 50개 이상의 개념을 추출하고 난 후, 이들을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개념들을 함축하는 대표적 개념들로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의사소통 등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 가족체계를 분류하는 유형화작업과 더불어서, '잘 기능하는 가족의 특징(well-functioning)'을 명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이 세 가지 개념들 중 응집성과 적응력을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은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주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가족체계 기능을 평가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가족의 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개발하였다.

1979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FACES I (Olson et al., 1979)은 1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가 1982년의 FACES II (Olson, Bell & Portner, 1982)에서는 50개 문항으로 압축·개정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어트척도로 그 문장이 응답자의 가족을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는 내용인지를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ACES III(Olson, Portner & Lavee, 1985)는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Olson, 1986). 이는 FACES II보다 문항수를 더욱 압축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개발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후의 경험적 검증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수가 낮으면 '극단'수준에 분류시키지만, 원래 Circumplex모델에서 사용하던 '균형적 유형'과 '극단적 유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역동적 변화를 두 가지 수준에서 파악한다. 1차적 변화(first-order change)는 일정한 가족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너무 많은 변화나 너무 적은 변화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곡선적이다. 한편 2차적 변화(second-order change)는 한 체계유형에서 다른 체계유형으로의 변화이다. 그것은 "체계 자체의 변화"이며, 시간이 경과해야만 평가될 수 있다. 균형가족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고, 극단가족에서는 비교적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직선적 관계를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Olson, 1991).

가 오히려 FACES II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 Olson은 이 FACES III를 사용하여 2,453명의 일반성인과 41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준 자료(normative data)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FACES series를 사용하였지만, 이같은 기준 자료없이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연구에서의 표본집단에 따라 가족체계유형분류가 달라지는 점이나 연구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점 등 한계점을 노출시켜 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이 FACES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우선적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FACES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그 이론적 유용성을 지지받아 왔으나, 그 척도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개념적·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특히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가족기능성과 곡선적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이, 자기보고식 측정을 하는 FACES III을 사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도전과 비판에 부응하여 Olson 등은 지난 몇 년간 곡선관계를 나타내는 자기보고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반응양식과 다른 항목구조를 사용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FACES IV를 개발하였다(Olson, 1994; Tiesel, 1994). FACES IV는 응집성과 적응력 차원의 네 가지 극단적 유형, 즉 혼란, 경직, 분리, 매몰 등의 유형에 대해서만 항목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응답 형식으로 실험을 거듭한 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³⁾ FACES IV는 네 가지 극단적인 유형에 대한 각 10개의 항목들을 사

용해, 가족치료자들에 의한 안면타당도, 요인분석에 의한 구성타당도, 알파계수에 의한 내적 합치신뢰도를 입증받았으며, 현재 척도로서 계속 정련·개발 중에 있다(Olson, 1994). 따라서 그 척도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간과 연구결과에 따른 Circumplex모델과 FACES의 구조적·이론적 변화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2. 가족응집성·적응력 개념의 수정과 새로운 체계유형 분류방식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이 가족진단의 핵심적 개념으로 선정했던 응집성, 적응력의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의 경험적 작업과 연구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입증되었으며, 또한 많은 문헌에서 유사한 개념들이 등장했다.

Circumplex모델의 개발 초기에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나, 최근에 들어 이 모델의 곡선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다소 수정되었다(Olson, 1994). 가족응집성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지니는 정서적 유대”(Olson, 1993)로 가장 구체적인 지표는 감정적 연대, 가족의 몰입,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내적 경계와 외적 경계이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적·직선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자율성 개념이 배제된 1983년 이래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가족적응력⁴⁾은 “지도력,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에

2) FACES III는 신뢰도(응집성 .77, 적응력 .62)와 동시적 타당도(응집성 .84, 적응력 .45)에 있어서 FACES II의 신뢰도(응집성 .87, 적응력 .78)와 동시적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응집성 .93, 적응력 .79)보다 낮다(Hamson, Hulgus, & Beavers, 1991). 따라서 Olson 등 연구자들 자신도 보완이 있기 전에는 FACES II의 사용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FACES III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3) Olson(1991)은 과거 FACES III가 곡선적 관계의 가설을 검증하지 못한 이유가 리커트 응답방식에 있다는 Dickerson과 Coyne(1987), Perosa와 Perosa(1990)의 지적에 따라 FACES IV 개발의 초기과정에서 양극형(bipolar) 응답방식을 시도했다. 그러나 명백한 곡선적 관계를 검증하지 못했고, 또 양극형 응답방식이 곡선적 관계의 존재를 암시적으로 가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Eckblad, 1993)에 따라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4) Olson은 적응력 개념이 대개는 직선적 차원에서 묘사되는 적응(adaptation)개념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1992년 이래로 가

서의 변화의 양”(Olson, 1993)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1992년에 바뀐것으로, 그 이전의 가족체계내에서의 지도력, 역할, 규칙에서의 “변화하는 능력”으로부터 “변화의 양”으로 규정된 것이다. <부록 2>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개념을 반영하는 질문내용들이 어떠한지를 참조하도록 FACES III의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FACES가 곡선적 관계보다는 직선적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라는 평가가 제기된 후 체계유형을 분류하는 방식과 명명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분류방식에서는 응집성과 적응력 점수에 따라 집단을 여덟 개의 수준으로 나눈 뒤 다시 네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분류방식에 따르면, 응집성은 점수가 낮은 집단부터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적응력은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체계유형은 이러한 응집성과 적응력의 집단 번호를 더한 뒤 2로 나눈 뒤에 결정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가족체계유형} = \{ \text{응집성 수준}(1-8) + \text{적응력 수준}(1-8) \} \times 1/2$$

가족체계유형도 초기 Circumplex 모델의 분류방식과는 다르게 네 가지 유형, 즉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중간범위 가족, 극단가족 등으로 나뉜다 (Olson et al., 1992).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아지면 균형가족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방식은 직선적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가족의 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가 개발된 과정과 활용되는 측면들을 살펴보았다. FACES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기능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임상장면에서 활용되는 등 기여한 점이 많다고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FACES의 단점과 한계점에 대한 지적과 비

판도 자못 강하게 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다음에서는 가족기능성평가척도로서 FACES가 갖는 개념적·방법론적 문제점이나 한계로 지적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념의 문제

Eckblad는 최근의 한 논의(1993)에서 Olson 등이 사용한 “Circumplex” 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용어는 수학자이자 심리측정학자인 Guttman이 1954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였다. Guttman이 사용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일단의 변수(예를 들어, 척도들이나 검증항목들)사이의 어떤 질서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FACES 항목의 이론적 구조는 Guttman의 Circumplex 모델과는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ckblad는 원래 그 용어를 도입한 사람이 사용한 의미와 다르게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 때 학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eavers와 Voeller(1983)는 FACES에서의 다른 개념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Beavers와 Voeller는 응집성과 적응력 개념 규정에서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Olson 등(1979)은 처음에 응집성 개념을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유대나 결합의 정도로 보다가, 이 차원에 ‘자율성 (autonomy)’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응집성의 개념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나 결합은 가족하위체계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변수라고 한다면, 자율성의 개념은 보다 개인적인 ‘자아(self)’에 관계되는 것으로, 어떤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추구되는 발달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적응력 개념을 살펴보면, Olson 등은 적응력을 “부부/가족체계가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그 권력구조, 역할관계와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변화는 적

족적응력 개념 대신 ‘가족융통성(family flexibility)’ 개념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응적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기준이 되며, 그런 변화의 결과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적응력의 개념을 것처럼 규정한다면 혼동된 가족(chaotic family)이 가장 적응적이어야 하는데, Olson 등은 Circumplex 모델 개발의 초기에 중간수준의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가족이 가장 능력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와같은 개념규정에서는, 적응력 점수가 가장 높은 가족(혼동된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지도력이 떨어지고 문제해결력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 중간 수준의 가족, 즉, 구조적 가족(structured family)이나 융통적 가족(flexible family)이 가장 적응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논리상의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Beavers & Voeller, 1983).

그 외에 개념의 문제와 관련하여 Beavers, Hampson과 Hulgus(1985)는 응집성과 적응력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FACES II를 사용한 그들의 연구에서 적응력과 응집성 척도는 $r = .6776$ 의 높은 상관을 보여 이 가족체계 개념들간에 독립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Olson(1986)은 FACES III를 개발하면서 이 두 개념간의 직교성 정도를 더 높인 바 있으나, 이러한 양 개념간의 독립성 문제는 이 척도가 적용되는 표본집단에 따라서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

2. 규준 자료(normative data)의 확보와 분할점(cutting point) 설정의 문제

FACES가 가진 문제점 중의 하나는 Olson(1986)이 시도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정한 규준자료(normative data)가 없다면,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적응력과 응집성의 점수를 각각 네 수준으로 가를 때의 분할점(cutting point)이 연구마다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연구자료와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고 연구결과가 축적될 수 없게 하는 단점을 지닌다.

3. 곡선적 관계 가설 검증에서의 실패 문제

FACES를 둘러싼 여러가지 도전과 비판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척도 중 문항형식의 구성문제, 둘째, 문항내용에서의 문제, 그리고 셋째로, 1차적 개념과 2차적 개념의 혼용문제와 관련되어 논의가 제기된다.

먼저 문항형식의 구성문제에서 Perosa와 Perosa(1990), Pratt과 Hansen(1987)에 의해 제기된 이항문항의 구성 권고와 그를 둘러싼 쟁점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Pratt과 Hansen(1987)은 FACES II와 III의 곡선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리커트방식을 사용한 이 척도들에서는 곡선적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이항적(bipolar)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 가족척도(Self-Report Family Inventory:SFI)”의 44번 문항에서는 곡선적 관계가 입증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Perosa와 Perosa(1990)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여 이항적 문항으로 질문내용을 구성했을 때, FACES의 곡선적 관계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Olson(1991)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이항적 형식을 사용해서 FACES IV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Eckblad(1993)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Eckblad는 이같은 형식의 사용은, 1이나 5는 극단적인 것과 곧바로 연결되고 3은 중간이 되므로, 곡선적 관계를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순전히 어의상의(semantic)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곡선관계의 존재 유무가 그런 관계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가정되는 척도에 의해 검증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둘째, 문항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Ben-David와 Sprenkle(1993)은 FACES III의 적응력 항목들을 중심으로, 곡선적 관계를 검증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응답자들이 연구자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담자들은 FACES에서 표현된대로 질문하였을 때, 연구자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다르게 묻는 대안적 질문을 했을 때에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결과도 곡선적 관계를 보

였다고 하였다. 이는 문항내용의 구성을 재고해야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Lee(1988)와 Burr, Day와 Bahr(1993) 등은 Olson 등이 FACES에서 1차적(first-order) 개념과 2차적(second-order)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기능성과 가족응집성·적응력과의 곡선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1차적 변화(first-order change)는 가족건강과 곡선적으로 관계가 되지만, 2차적 현상인 체계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력(ability)은 곡선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적응적인 기능에 선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FACES에서의 적응력(adaptability)은 1차적 현상이 아니고, 2차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른 가족기능성 평가척도와의 비교 문제

FACES는 그 임상적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지지가 일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기능성평가 척도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척도는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을 지지하는 연구 중 Baranowski, Dworkin, Hooks, Nader와 Brown(1986)의 연구에서는 항목분석, 내적 타당도와 검증-재검증 신뢰도 계수, 그리고 요인분석 등을 통해 FACES II를 Moos의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FES)와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측정적 특징상 FES가 FACES보다 더 무난했다고 밝혔다.

또한 Dickerson과 Coyne(1987)은 FACES II, FES, Epstein 등의 FAD(Family Assessment Device), Reiss의 CRS(Card Sort Procedure)를 사용해서 각 척도들의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적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ACES II와 FAD는 다른 척도들과 비교해서 판별적 타당도가 약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FACES와 FAD를 비교한 Fristad(1989)의 연구에서는 가족들의 자기보고와 임상가들의 평가척도에 의해 FAD가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더 낫다고 평가했는데 그 근거로서 i) FAD가 더 민감하고(예: 측정도구점수에 기초하여 임상가족을 더 정확히 밝혀내는 능력), ii) 임상평가척도와 가족원들의

자기보고척도간 상관이 더 높았고, iii) FACES에 의해 제시되는 곡선적 가설을 검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IV.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를 사용한 국내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에서 FACES는 가족학,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이 분야들에서 나온 국내 FACES 관련연구들의 경향과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 사용 연구들의 경향

첫째, 가족내의 발달상의 변화로 관심을 모으는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에 대한 관심이 단연코 높았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청소년자녀간의 가치합의, 심리적 거리나 정신건강과 가족응집성·적응력과의 관계(박초야, 1988; 안양희, 1988; 최연실, 1993)를 파악해 보거나,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적응력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유순덕, 1987; 전귀연·최보가, 1995 a,b,c).

둘째, 청소년자녀 외의 가족원들에 있어서의 가족응집성과 적응력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있었다. 김수연·김득성(1993)은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응집성·적응력과의 관계를 통해 Circumplex 모델의 곡선성과 선형성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서 응집·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는 선형적이며, 적응보다는 응집이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셋째,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의 FACES가 갖는 신뢰도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주로 가정의학 분야에서 나온 이 연구들 중, 임종환 외(1990)의 연구에서는 FACES III가 신뢰도, 구성적 타당도 등은 검증되었으나 동시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넷째, 임상적인 수준에서의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적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김홍기 외, 1991; 안양희, 1988; 유태욱 외, 1991; 이재운 외, 1990; 임용우, 1984; 조영환 외, 1991), 안양희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단적인 가족유형 안에서 이러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행동의 발생빈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다섯째, 가족유형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나 위기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대처방식에서의 차이 등을 살펴보는 노력(정민자, 1992)이 있어 왔다. 정민자(1992)연구에서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가족스트레스의 차이나 대응전략 상에는 차이가 없으나, 가족자원은 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 순으로 많았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국내의 연구들을 곡선적 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곡선적 가설을 지지한 경우(유순덕, 1987; 전귀연·최보가, 1993; 정민자, 1992)와 선형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들(김수연·김득성, 1993; 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안양희, 1988)로 나뉘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일관된 결과는 척도 구성과 사용, 분석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척도 구성상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문항 형식과 문항내용의 차이, 개념의 혼용 등이 거론될 수 있는데, 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FACES II와 III, 그리고 이들 척도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FACES II와 III는 우선 문항 수에서 차이가 있고, FACES III는 임상적 활용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응집성과 적응력의 구성 개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로, 분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곡선적 가정을 검증하는 통계방법의 적용과 분석의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계방법의 적용 측면에서 볼 때, 곡선적 가정하에서 직선적 가정에 적합한 통계방법을 사용한 것에서 오는 혼란된 결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 곡선성 가설 검증에는 주로 분산분석이 사용되어 온 경향인데, 이 방법 외에

도 관계의 선형성을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의 사용이 시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분석의 차원에서는 분석시 응집성과 적응력 각 차원을 개별 분석하였을 때는 거의 직선적 관계를 보고하나 함께 볼 때는 곡선적 관계를 보고하는 경향이므로 이러한 분석의 차원에서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 사용 연구들의 특징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를 사용한 연구들 중 가족학, 아동학,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총 20여편의 대략적 특징을 <부록 3>에서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FACES를 사용한 연구들에 있어서 몇 가지 거론할 점들이 있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가족학이나 아동학, 가정의학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가족학이나 아동학에서는 어떤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적 특성이나 가족내의 역동을 알아보려는 데 초점이 주어졌으며, 가정의학에서는 주로 실제 임상장면에서의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둘째, FACES II나 FACES III의 사용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최근에 올수록 많은 연구들이 FACES III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연구의 편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FACES III는 FACES II에 비하여 문항 수가 적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선호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FACES III는 FACES II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최신판이라고 하여 무비판적으로 FACES II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셋째,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한 척도들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가족기능성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분야의 연구가 점증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외국

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들의 사용에 있어 항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것이 지적되었듯이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한 FACES의 응집성·적응력 개념을 통해서 한국가족의 기능성이 잘 평가될 수 있는지, 또 한국문화 안에서의 응집성·적응력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그들의 개념과 별 차이없이 같은지를 살펴보는 연구작업들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여러 척도들 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가족적응력·응집성평가척도(FACES)를 사용하여 발표된 국내외의 문헌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 척도가 지니고 있는 이론적 의미들이나 실용적 가능성을 살펴봄과 아울러, 이 척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는 Olson을 중심으로 공동의 연구자들이 1979년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된 이래로 많은 연구작업이나 실제 임상장면에서 활용되면서 기여를 해왔고 또 지적받는 문제점들이나 결함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 FACES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성과들이 배출되었으며,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비교나 FACES가 지닌 문제나 결함에 대한 이론적 공방은 가족치료나 임상장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가족연구의 이론적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FACES는 이와같이 이론적·실제적 유용성과 영향력이 입증되어 왔으면서도 또한 많은 개념적·방법론적인 한계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까지 FACES를 사용한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첫째, 용어사용, 개념 규정, 주요개념간에 상호독립성 보장의 문제, 둘째, 규준자료(normative data)가 제시되지 않을 때의 한계, 셋째, 곡선적 관계에 대한 가설이 경험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 점, 넷째, 다른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들에 비하여 FACES가 우수한 척도임을 확실히 보

장해주는 경험적 지지가 약한 점 등이었다.

그런데, Lee(1988)가 제시했듯이, 이러한 결점들이 있다고 해서 곧 FACES가 무용한 도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현상을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완벽한 척도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척도들이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FACES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통해 입증해 온 바와 같이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척도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FACES에 대해서 제시되었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좀더 보완·수정해서 가족기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도구로 발전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본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발표된 FACES에 관한 논문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이 있고, 또 FACES가 갖는 방법론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실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보다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고 논의한 점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족적응력·응집성 척도 연구의 한계 보완과 연구 진전을 위해 개념적·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기능성을 평가하는 주요개념의 선택과 구성에 대한 재고를 해야한다. 그동안 FACES를 사용한 국내연구들은 응집성과 적응력 개념의 수정없이 Olson 등이 규정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응집성과 적응력이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지, 만일 그러하다면 Olson 등이 제시한 응집성과 적응력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문화적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재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FACES를 사용했을 때에는 타당도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데, 그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타당도의 문제와 앞에서 지적한 개념규정의 문제는 모두, 가족응집성과 적응력과 가족기능

성과의 곡선적 관계 검증에 대한 혼란된 결과와도 관계가 되는데, 이는 우리상황에서 적절한 측정도구를 갖추고 난 이후에야 제대로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가족의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 자료(norm)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은 연구들마다 표본에서 추출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응집성과 적응력의 범주를 각각 달리 구분하였다. 따라서 그 연구들은 실시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또 연구 결과들끼리 비교할 수 있는 근거의 부족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그 연구의 표본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기준 자료의 개발은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주리라고 믿는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FACES와 같은 가족기능성 평가도구의 개발은 현재 가족치료나 가족생활교육과 같은 가족연구의 응용·실용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가족의 체계기능적 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가족의 체계가 역기능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기준이나 특징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의 사소통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30-39.
- 2) 김수연·김득성(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121-134.
- 3) 김영민(1992). 장기 장애인 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기능 비교- Circumplex Model과 스트레스 적응방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김진희(1988).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홍기·장선향·이선미·정의식(1991). 우울증 환자에서 가족기능도 지수와 가족적응력·결속력 평가척도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2(7):36-45.
- 6) 문성희·전종찬·오현경·김해연·배철영·신동학(1993). FACES III와 family APGAR 지수와 의 연관성. 가정의학회지 14(1):40-45.
- 7)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박경숙(199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년기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121-135.
- 10) 박초아(1988).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서컴프렉스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2)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3) 유태욱·강형운·오현희·이상화·이혜리·윤방부(1991). FACES III를 이용한 신체화질환 가족 유형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2(6):21-27.
- 14) 이재윤·이혜리·조동영(1990). 가족적응력·결속력 평가척도(FACES III)를 이용한 만성알콜중독 환자의 가족기능평가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1(10):29-33.
- 15) 임용우(1984). 가족체제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임종한·이규래·오미경·곽기우·이혜리·윤방부(1990). 가족적응력·결속력 평가척도(FACES III)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1(11):8-17.
- 17)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

- 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18) 전귀연·최보가(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7.
- 19) 전귀연·최보가(1995b).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7.
- 20) 전귀연·최보가(1995c).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13(1): 99-113.
- 21)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189-218.
- 22) 정수경(1993). 한국임상가족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사정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문사회사업의 실천 -이론적 쟁점과 제도적 맥락. (pp. 297-300). 난사 김중옥 박사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 23) 정원미(1994).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 Circumplex Model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4) 조영환·정용표·오미경·곽기우·이혜리·윤방부·홍승범·김윤진(1991). FACES III를 통해 본 히로병 남용환자의 가족기능. 가정의학회지 12(9):45-55.
- 25)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140-152.
- 26)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99-113
- 27)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159-175.
- 28) 한유미(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9) Anderson, S. A. & Gavazzi, S. M. (1990). A test of the Olson Circumplex Model: Examining its curvilinear assumption and the presence of extreme types. Family Process 29:309-324.
- 30) Baranowski, T., Dworkin, R. J., Hooks, P., Nader, P. R., & Brown, J. (1986). The reliability of two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in three ethnic groups. Family Perspectives 20(4):353-364.
- 31) Beavers, W. R. (1981). A System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229-307.
- 32) Beavers, W. R., Hampson, R. B., & Hulgus, Y. F. (1985). Commentary: The Beavers System approach to family assessment. Family Process 24: 398-405.
- 33) Beavers, W. R., & Voeller, M. N. (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22:85-98.
- 34) Ben-David, A., & Sprenkle, D. H. (1993). How do they(participants) understand our(researchers) intentions? A qualitative test of the curvilinear assumptions of the adaptability items of the FACES III.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1):17-26.
- 35)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Brooks /Cole Publishing Co.
- 36) Cluff, R. B., Hicks, M. W., & Madsen, Jr., C. H. (1994). Beyond the Circumplex Model: I. A moratorium on curvilinearity. Family Process 33: 455-470.
- 37) Dickerson, V. C., & Coyne, J. C. (1987). Family cohesion and control: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3(3):275-285.
- 38) Eckblad, G. F. (1993). Commentary: The "Circumplex" and curvilinear functions. Family Process

- 32:473-476.
- 39) Fristad, M. A. (1989). A comparison of the McMaster and Circumplex family assessment instrum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3):259-269.
- 40)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91). Family Therapy-An Overview. 3rd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
- 41) Grotevant, H. D., & Carlson, C. I. (1989). Family Assessment: A Guide to Methods and Measures. New York: Guilford Press.
- 42)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 (1991). Comparisons of self-report measures of the Beavers Systems Model and Olson's Circumplex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3): 326-340.
- 43) Lee, C. (1988). Theories of family adaptibility: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 44) Olson, D. H. (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337-351.
- 45) Olson, D. H. (1991).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74-79.
- 46) Olson, D. H. (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 (pp. 104-137). N. Y. : Guilford Press.
- 47) Olson, D. H. (1994). Commentary: Curvilinearity survives: The world is not flat. Family Process 33:471-478.
- 48) Olson, D. H., Bell, R., & Portner, J. (1982). Family Adapti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II. St. Paul:University of Minnesota.
- 49)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50)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 (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University of Minnesota.
- 51)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manual. St. Paul:University of Minnesota.
- 52)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69-83.
- 53)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i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3-28.
- 54) Perosa, L. M., & Perosa, S. L. (1990). The use of a bipolar item format for FACES III: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2):187-199.
- 55) Pratt, D. M., & Hansen, J. C. (1987). A test of curvilinear hypothesis with FACES II and III.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3(4): 387-392.
- 56) Thomas, V., & Olson, D. H. (1994). Circumplex Model : Curvilinearity using Clinical Rating Scale (CRS) and FACES III. The Family Journal 2(1): 36-44.
- 57) Tiesel, J. W. (1994). Capturing family dynamic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CES IV.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부록 1〉 시간과 연구결과에 따른 Circumplex모델과 FACES의 구조적·이론적 변화

단계	연도	주요차원	Olson의 가설	연구결과	이론
단계 I	1975-1978	응집성 융통성 (창의성)	가족건강과 곡선적 관계 곡선적 관계	가족건강에 대해 비일관적인 결과 직선적 관계	균형이 이상적이며, 건강한 가족만이 중간영역에서 발견되고, 역기능적인 가족은 극단에서 발견된다.
단계 II	1978-1980	응집성 (정서+자율성) 적응력 (지도력)	곡선적 관계 곡선적 관계	비일관적인 결과 비일관적인 결과	건강한 가족도 생활주기나 발달단계 에 따라서는 극단으로 움직일 수 있 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중간영역 에 머무르게 된다.
단계 III	1980-1983 FACES I	응집성 (정서+자율성) 적응력 (지도력 외)	곡선적 관계 곡선적 관계	비일관적인 결과 비일관적인 결과	모든 가족원이 같은 기대를 갖고 있 다면 건강한 가족이라도 극단에서 기 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발달은 그 댓가를 치루게 된다.
단계 IV	1983-1985 FACES II	응집성 (정서+지지) 적응력 (지도력 외)	곡선적 관계 곡선적 관계	비일관적인 결과 비일관적인 결과	건강한 가족은 그들의 이상과 지각되 는 현실간에 일치가 있다면 어느 곳 에서나 기능할 수 있다.
단계 V	1985-1989 FACES III	응집성 (정서+지지) 적응력 (지도력 외)	곡선적 관계 곡선적 관계	비일관적인 결과 비일관적인 결과	정상가족에게는 직선적 관계, 임상/역 기능적 가족에게는 곡선적 관계가 가 정된다.
단계 VI	1989- 현재 FACES II	응집성 (정서+지지) 적응력 (지도력 외)	직선적 관계 직선적 관계	직선적 관계 직선적 관계	FACES III는 Circumplex와 곡선성을 측정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직선적인 측정치이다. FACES II를 사용하라.

출처: Cluff et al.(1994:457)

〈부록 2〉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 III(FACES III)의 문항

주요 차원	문 항 내 용
응집성(10문항)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청한다. 3. 우리 식구는 각자의 친구를 좋은 친구로 인정해 주는 편이다. 5. 우리 식구들은 가족과 함께 무슨 일하기를 좋아한다. 7. 우리 가족은 가족 밖의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들끼리 더 친하다. 9. 우리 식구는 여가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기 좋아한다. 11. 우리 식구는 서로에 대해 매우 가깝게 느낀다. 13. 우리 식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인다. 15. 우리 식구는 한 가족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17. 우리 식구는 무슨 결정을 할 때, 가족내의 다른 사람과 상의한다. 19.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응력(10문항)	2.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의견을 따를 때도 있다. 4.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 자녀들도 자기의 주장을 하는 편이다. 6.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늘 바뀐다. 8. 우리 식구는 늘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10. 자녀에게 벌을 줄 때, 벌주는 방식에 대해 자녀와 함께 상의한다. 12. 우리 가족에서는 자녀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14. 우리 가족내에서는 규칙이 잘 바뀐다. 16. 우리 식구는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맡는다. 18.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가족을 이끄는 사람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20. 우리 집에서는 어떤 집안일을 누가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록 3>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를 사용한 국내연구

연구자	사용척도	대 상	연구결과	배경 분야
김수연·김득성 (1993)	FACES III	부부 142쌍	직선적 관계(응집성·적응력과 의사소통)	가족학
김수연·김득성 (1994)	FACES III	맞벌이 부부 168쌍	직선적 관계(응집·적응과 역할갈등)	가족학
김영민(1992)	FACES III	장기장애인 가족 일반가족	뚜렷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가족기능과 스트레스 적용)	사회복지학
김윤희(1990)	FACES III	고등학교 1, 2학년 190명의 가족과 비행청소년 87가족	직선적 관계(가족기능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부관계)	교육학
김진희(1988)	FACES II	중고생 434명	직선적 관계(응집성과 적응력과 의사소통)	가족학
민하영(1991)	FACES II	소년재소자 143명 일반청소년 87명		아동학
민혜영(1990)	FACES III	청소년 631명	곡선적 관계(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학
박경숙(1993)	FACES III	중년기여성 243명	직선적 관계(응집력·적응력과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가족학
박초아(1988)	FACES II	부모, 대학생자녀 159가족		가족학
안양희(1988)	FACES III	부모, 남고생 250가족	직선적 관계(가족결속력과 정신건강)	간호학
유순덕(1987)	FACES II	모, 남중생 156가족	곡선적 관계(가족체계유형과 의사소통)	간호학
임용우(1984)	FACES II	남고생 167명 여고생 209명	곡선적 관계(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교육학
전귀연·최보가 (1993, 1995a, 1995b, 1995c)	FACES III	중고생 443명	직선적 관계(응집성·적응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관계 문제의 정도,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아동학
정민자(1992)	FACES III	정상가족 231명 상담가족 103명	뚜렷한 곡선적 관계는 아님(상담가족이 극단에 속한 비율높음)	가족학
정원미(1994)	FACES III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	곡선적 관계(가족체계유형과 스트레스)	보건학
최규련 (1994, 1995)	FACES II	부부 532쌍	직선적 관계(응집성, 적응성과 부부갈등, 결혼만족, 자아존중감,우울증)	가족학
최연실(1993)	FACES II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072명	복합적인 결과(가족체계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혁)	가족학
한상분(1992)	FACES III	국민학생 남아 168명 여아 179명	직선적 관계(응집성, 적응성과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학
한유미(1990)	FACES II		직선적 관계(응집성, 적응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학